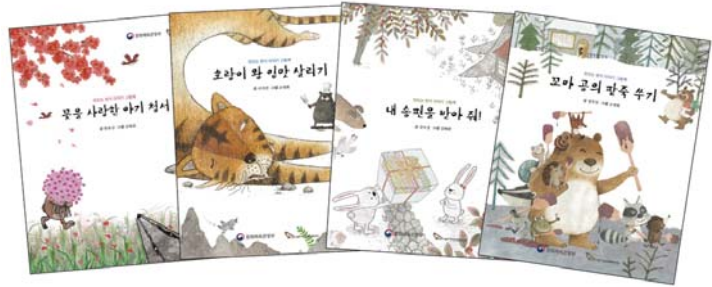


전통문화전당, '맛있는 절기 이야기' 프로그램 진행

절기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일까지 전당 누리집에서
유튜브에서 총 4편 구성된
한식이야기 애니메이션 시청 후
음식에 대한 소감 남기면 돼



'맛있는 한식 이야기' 그림책 4편.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잊혀져가는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인 절기음식에 대해 시민들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묻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서구화된 음식문화의 유입과 식재료의 계절 구분이 모호해져 의미를 잃고 사라져가는 절기음식을 재조명,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맛있는 절기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맛있는 절기 이야기'는 절기음식과 절기음식에 담긴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 풍습, 그리고 이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아동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으로 꾸민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유튜브에서 총 4편으로 구성된 한식이야기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절기

음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줄 수 있다.
전당은 프로그램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해 '2019 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맛있는 한식 이야기' 그림책 4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 그림책은 동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계절별 절기음식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도서로, 애니메이션에는 수록되지 않은 특별 부록편이 담겨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2일까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tc.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살날 때국, 추석 송편, 동지 팥죽 등 사시사철 절기음식들이 있었는데, 서구화된 음식문화의 유입과 식재료로 절기음식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맛있는 절기 이야기'를 통해 우수한 우리의 절기음식을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무주 용포리 노고산 봉수 봉화대 석렬 근경.

무주서 '삼국시대 봉수' 확인

2개의 기단·연대 등 봉수 관련 유구

무주군은 무주읍 용포리 산 54번지 일원에서 삼국시대 봉수(궤불과 연기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 등을 알리던 것)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지난 8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전선행)과 합동으로 봉수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무주읍 용포리 노고산 봉수(이하 무주 노고산 봉수)에서 2개의 기단과 연대 등 봉수와 관련된 유구를 확인했다.
평면형태상 장방형의 모습을 띠는 무주 노고산 봉수는 노고산(해발 550.7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단시설과 봉화대로 구성돼 있다. 잔존 규모는 장축 7.8m, 단축 4.7m이며 봉화대 주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저부 및 동체부편 4점이 확인됐다.
기단시설은 자연인반층을 정지한 후, 소형의 깨진 돌을 흙과 섞어 기초를 마련해 그 위에 기단 돌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봉화대는 기단시설과 1m 간격을 뒀으며 내부에는 회갈색 흙을 이용해 다짐한 흔적이 남아있다.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박춘규 조사연구실장은 "무주지역 최초의 삼국시대 봉수를 확인한 의미있는 조사였다"라며 "무주군을 포함하는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봉수와 관련된 문화를 복원하고 삼국시대 관방 체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국시대 봉수가 확인된 무주읍 용포리에는 금강의 지류인 남대천과 적상천, 삼류천 등이 합류하며 갈산산·노고산·조항산으로 이어지는 봉우리가 자리해 있다.
무주 노고산 봉수는 정수군에서 시작해 무주군과 금산군을 잇는 봉수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수 영취산유적과 정수 봉화산유적에서 확인된 봉수의 축조방식 및 출토유물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무주지역 봉수의 위치나 형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볼 때 인근 지역 봉수와 동일한 세력에 의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접했다"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지속적인 문화유적 발굴과 복원을 진행해 무주의 뿌리를 찾고 나아가 소중한 역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대면 개최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무관중·비대면 공연으로 진행 되었다. 공연곡으로는 환희의 송가, 맘마미아, 크리스마스 캐롤 등 총 8곡을 연주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정기연주회를 가지게 됐으나, 내년에는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기연주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주회를 준비한 단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공연 활용으로 공연 영상은 오는 21일 이후 장수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와 장수군 군비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자립거점기관으로써 내실 있는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올해부터는 전액 군비 지원 받아 운영하게 됐다.

현재 관내 초·중·고 학생 60여 명, 문권철 감독과 강사 등 총 70여명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정서안정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병태 장수문화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원들과 강사들이 그동안 연습해 온 곡들을 비대면 활용을 통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유튜브를 통해 단원들의 연주를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의학, 생명을 귀히 여기다'

원광대 박물관,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내년 6월까지 '특별전'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박물관은 '동의보감(東醫寶鑑)'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한의학, 생명을 귀히 여기다'를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교내 박물관 302전시실에서 진행한다.

2020년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홍보 활용사업의 일환인 이번 전시회는 문화재청이 시행하고, 경상남도 및 산청군이 후원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의보감사업단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동의보감'은 허준(1539~1615)이 15년의 노력 끝에 1610년 완성해 올해 410년을 맞이했으며, 2020년은 전문 의학서로는 최초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11주년이 되는 해로 원광대 박물관은 1968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집·기증된 유물 중 '동의보감'과 연관된 한의학자료 및 민속자료, 무속자료 90여 점을 선별해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준비했다.

특별전은 총 3부로 구성된 가운데 제1부 '의술(醫術), 인체를 통해 우주를 보다'에서는 동의보감 내경권 및 침구권과 관련된 경혈도, 신형장부도 등을 통해 동양의학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치유 사상을 살펴보고, 동의보감 탕액편과 연관된 약을 채취·제조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한다.

제2부 '동의보감, 의술을 기록하고 알리다'에서는 동의보감 편찬과정과 구성을 소개하고, 동의보감 편찬에 참여한 조선시대 학자 정작(1533~1603)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되고 있다.

제3부 '강녕(康寧), 건강을 기원하고 실천하다'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 건강과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 실천하던 다양한 방식과 상징 문양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식습관 문화를 탐구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동의보감 전시와 홍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연구사업 책임연구원인 한의과대학 강연석 교수는 "이번 특별전은 여러 면에서 한의학 관련 전시에 한 획을 그은 전시회로 생각한다"며 "원광대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동의보감 원질의 기증자가 명확하고, 기증자인 박해창(1876~1933) 초상을 그린 채용신(1876~1941)의 박해창유복초상화가 함께 전시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심청의 탄생부터 심봉사 눈 뜨는 대목까지

국립민속국악원, 18~19일 직은 창극 '심청-꿈엔들 잊힐리아'
심청전 주요 내용, 새 무대언어로... 28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 예원당에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19일 오후 3시 작은창극 '심청-꿈엔들 잊힐리아'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영원한 고전문학 '심청전' 중에서 심청 탄생부터 이별, 그리고 눈 뜨는 대목까지의 주요대목을 새로운 무대언어로 구성한 작품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류기형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음악은 소규모 정에 편성으로 뛰어난 연주자의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연주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단순 배역도 참여해 극의 활력을 더하고, 무용수도 기존의 춤꾼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몸짓으로 표현하며 극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등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탐험하고 흥미로운 색다른 공연이 될 것이다.



작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람문의는 전화 (063-620-2324~5)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회당 100명)이 가능하며, 12월 28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다.
왕기석 원장은 "작은 창극 형태의 공연물을 제작, 지속 가능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